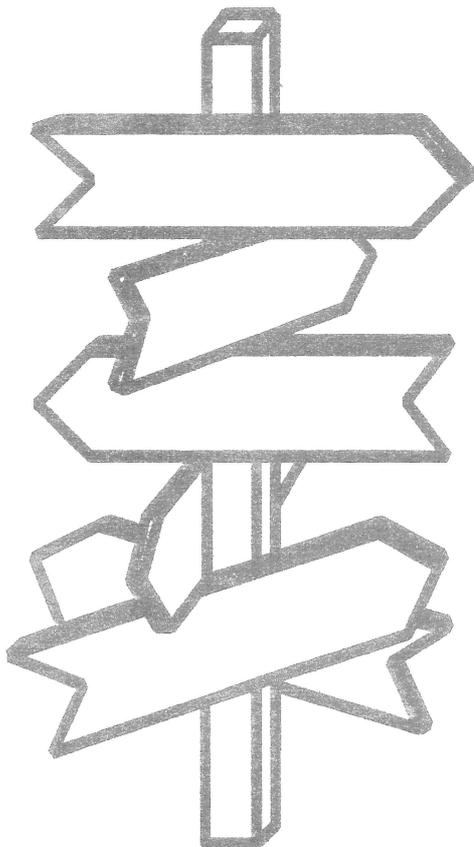


기업가와 시대정신 이야기

공병호 지음



훔 어 보 기

어느 사회건 이익의 충돌이라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법과 제도를 구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어느 사회든지 올바른 법과 제도만으로 안정과 번영을 보장받을 수 없다. 특정 사회의 구성원들이 올바른 사고의 틀을 갖지 않는 한, 제대로 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대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한 사회를 이루는 다수가 잘못된 사고의 틀에 바탕을 두고 선택을 하는 경우, 사람들은 올바른 법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을 만들어 내고, 그 사회는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 사회의 번영이란 주제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회 구성원들이 가진 '사고의 틀a way of thinking'만큼 중요한 것도 드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어떤 사회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련의 개혁 작업이 필요할 경우,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도자의 확고한 철학과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는 개혁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도층들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도자의 자질과 함께 사회의 전반적인 지적 분위기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래서 한 시대를 풍미하는 시대정신Zeitgeist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누가 그 시대정신의 주역인가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시대정신은 제대로 된 개혁을 위한 지적 인프라스트럭처intellectual structure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정신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을 두고 영국의 경제문제연구소IEA 소장인 존 블란델은 '사상 전쟁의 수행Waging of War of Ideas'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영국과 미국의 지적풍토가 진보를 앞세운 국가개입주의에 의해 압도되고 있을 때, 이러한 사회분위기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책이 출간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다. 1944년에 출간된 하이에크 교수의 『노예의 길The Road to Serfdom』이 바로 그것으로 미국에서는 시카고 대학판이 나온 이후 그 요약본이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렸고, 이어 백만 부 이상이 판매되게 되었다. 하이에크 교수가 거둔 성과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다. 정부개입주의가 지배적인 분위기 속에서 하이에크의 저서는 이후 자유주의의 확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은 잠자고 있던 몇몇 자유주의자들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은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된다.

『노예의 길』에서 감명을 받은 인물들 가운데 자유주의의 확산에 큰 기여를 한 인물들로 미국의 헤럴드 루노Harold Luhnow, 레너드 리드Leonard Read, F.A.하퍼 F.A.Harper, 그리고 영국의 앤터니 피셔Antony Fisher를 들 수 있다.

헤럴드 루노는 『노예의 길』을 읽은 뒤에 철저한 고전적 자유주의자가 되었다. 그리고 볼커기금William Volker Fund의 이사장으로서 자유주의의 확산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루노는 볼커기금을 통해 첫째, 그 당시 미국 내 대학에서 자리를 얻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하이에크, 루드비히 폰 미제스, 아론 디렉터 등 세계적 학자들을 지원했다. 둘째, 소수의 자유주의 학자들이 만나서 토론하고 생각들을 나눌 수 있도록 지원했다. 셋째, 자유주의에 대한 교육과 계몽사업의 추진에도 큰 기여를 하였는데, 1961년에 설립한 인문과학연구소IHS가 그 예이다. 넷째, 자유주의에 입각한 서적들을 출판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끝으로 ‘개인주의자들의 대학간 협회ISI’, ‘경제교육재단FEE’, ‘이어하트 & 레임재단The Earhart and Reim Foundation’ 등과 같은 자유주의 연구소의 설립을 지원했다.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이 구원해 낸 또 한명의 인물로는 레너드 리드Leonard Read를 들 수 있다. 그는 1939년부터 미국에서 가장 큰 상공회의소인 로스엔젤레스 상공회의소의 회장을 지낸 인물이었다. 자유주의의 입장을 지지하게 된 리더가 미국 사회에 남긴 최고의 업적은 자유주의를 체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경제교육재단the Foundation of Economic Education을 1946년에 설립한 것이었다. 리드는 37년간 경제교육재단의 이사장으로 일하면서 자유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한 교육의 길을 개척하였다. 그는 주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고, 경제교육재단은 미국이 자유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

F. A. 하퍼 역시 루노와 리드처럼 『노예의 길』을 읽고 자신의 인생항로를 바꾼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 『노예의 길』을 만날 당시에 그는 코넬 대학교의 경제학과 교수였다. 그는 즉시 이 책을 이용하여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고 있던 대학에서는 이 강의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그 사건 이후 하퍼는 레너드 리드와 합류하여 경제교육재단의 연구원이 되었으며, 1950년대 중반에는 볼커 기금의 선임연구원이 되었다. 1961년에는 자리를 옮겨 인문과학연구소IHS를 설립했다. 인문과학연구소IHS는 1970년대 말부터 우수한 인재를 스카웃하여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학자나 지성인으로 양성하는 일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지성적 사업가는 앤터니 피셔Antony Fisher이다. 『노예의 길』을 읽고 감명을 받은 그는 하이에크를 찾아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정치에 입문해야 할까요?” 그가 물었다.

“아니오” 하이에크는 대답했다. “사회적 진로는 오직 사상의 변화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먼저 당신은 합리적인 주장으로 지식인들, 교사와 작가들을 설득하

십시오. 이러한 사상이 그들의 영향으로 보편화되면 정치가들은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피셔는 1955년에 ‘런던경제문제연구소IEA’를 설립하여 자유경제와 지식인들을 위한 활동무대를 만들었다. 그리고 ‘영국에서 자유시장을 신봉하는 마지막 두 명의 경제학자’라고 불리던 랠프 해리스Ralph Harris와 아서 셸든Arthur Seldon을 초빙했다. 그리고 나서 런던경제문제연구소는 일련의 독립적인 연구들을 출판하기 시작했다. 이 책들은 대부분 학자들에 의해 저술되었지만 쉽게 쓰여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었다.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여론은 명백하게 정부의 개입이 아닌 시장의 해법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으며 런던경제문제연구소IEA는 분명히 그 책임을 다했다. 1979년, 수상취임을 앞둔 대처 여사는 피셔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당신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자유주의 사상의 확산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것은 미국의 헤리티지연구소의 설립과 눈부신 성장을 들 수 있다. 헤리티지의 등장은 ‘지성적 기업가’와 현실세계의 ‘기업가’가 힘을 모아서 만든 한편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헤리티지의 창립에 기본 아이디어를 가졌던 지성적 기업가들은 퓨러너Edwin J. Feulner와 위릭 Paul M. Weyrich이라는 두 젊은이였다. 국회의원 보좌관이었던 이들은 진보주의자들이 정교하게 조직된 정책결정기구를 갖고 있는데 반하여 자유주의자들은 그것에 필적할 만한 어떤 것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데 문제의식을 가졌다.

이 때 이 젊은이들의 활동을 후원하기 위해 등장한 중요한 인물이 쿠어스 맥주의 창립자인 조셉 쿠어스Joseph Coors였다. 쿠어스는 버지니아 리치먼드의 저명한 검사였던 루이스 포웰Lewis F. Powell에 의해 만들어진 5천자 가량의 강연초록을 읽고, 그가 세운 회사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기업가들과 그들이 만든 단체들이 미국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해서 강력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대해서 그 이유를 궁금해 하였다. 조셉 쿠어스가 자신이 세운 회사가 정치적으로 더욱 깊게 간여하기로 결정한 이후 당면한 최고의 문제는 어떤 조직을 지원할 것인가라는 문제였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쿠어스의 눈에 30대 초반의 두 젊은이가 눈에 띄었던 것이다.

퓨러너와 위릭을 중심으로 한 창립자들은 1973년에 조셉 쿠어스가 기증한 25만 달러의 기금으로 헤리티지재단을 설립했다. 쿠어스에 이어서 존 스케이프John Scaife, 노블재단Noble Foundation, 존 M. 올린John M. Olin 재단 등이 헤리티지를 후원했다. 이렇게 해서 퓨러너가 헤리티지재단의 소장이 된 1977년경에는 연간 예산이 2백

만 달러를 넘어섰고, 때로는 연간 30%의 성장률을 보여 1983년에는 1천만 달러, 1989년에는 1천8백만 달러에 달했다. 현재 헤리티지재단을 지원하는 지원자 수는 개인과 기업, 그리고 각종 재단을 포함하여 약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헤리티지의 성장은 퓨러너라는 지성적 사업가의 눈부신 활동에 힘입은 바 크다.

어떤 사회든 구성원들이 자유주의를 하나의 시대정신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그 사회가 계속해서 번영의 길로 달려갈 수 없다. 이미 우리 사회는 지적 인프라스트럭처의 부재로 말미암아 상당한 진통을 겪어 왔고 앞으로도 더 겪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는 누군가가 나서서 무엇인가를 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위해 우선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자유주의자들의 힘을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 기업가들, 반공주의자들, 대다수 중산층들, 소수의 자유주의 지식인들, 이 모두가 자유주의가 이 사회의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는 데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니셔티브를 잡아야 할 사람들은 바로 시대정신의 중요성을 자각한 성공한 기업인들과 시대정신의 확산을 도울 수 있는 소수의 지식인들, 다시 말하면 ‘지성적 기업가(intellectual entrepreneur)’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공한 기업가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지식인들에게 돈을 기부하거나 지원할 때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마이클 노박(Michael Novak)의 충고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단에서 일하는 데 가장 적합한 사람, 즉 기증자의 재단설립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이를 위해 일생 동안 매진할 사람을 찾는 것이다. …… 특정 사상, 정책, 운동 등에 관한 전반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를 후원하고자 한다면, 아마도 대학 내부 혹은 외부에 독립적인 연구센터나 싱크탱크(think tank)를 설립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 일반 대학의 정치적 흐름과는 동떨어진 것이어야 한다.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 책임자에게 올바른 환경을 제공하라. 아무리 책임자라고 해도 그가 속한 기관의 환경이 좋은 지원을 해 주지 못하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기관의 상부 혹은 하부로부터 나오는 냉소주의는 일을 시작도 하기 전에 망칠 수 있다. …… 앤드류 카네기가 깨달았듯이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은 장기간에 걸쳐 기증자의 원래 취지를 기꺼이 지원해 줄 의사가 있는 그러한 수혜대상을 찾는 것이다. 그러한 의사가 없다면 재산을 기증하는 것도 그저 바람 앞에 돈을 뿌리는 것과 같다.”

“사업은 그저 아무 땅에서나 잘 자라는 식물이 아니다. 즉 기업은 특정한 정치적 환경political environments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가들은 생존의 차원에서 자기가 속한 정치사회political society를 감시할 책임이 있다. 기업가들이 역사 속의 다른 어떤 사람들만큼이나 열정적으로 자유를 사랑하고 흔히 자유사회의 선봉이 되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기업의 생존은 자유사회라는 체제의 생존에 달려 있으므로, 기업세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사회를 지탱하는 원칙들을 잘 알고 지키는 다수 사람들을 교육하고 계몽하면서 유지할 책임을 강하게 느껴야 한다.”¹⁾

1. 시작하는 말: 열린사회와 변영

대다수 인간은 자신의 이익에 충실하게 움직이는 존재이다. 때문에 인간들의 모임인 조직이나 국가의 내부에는 이익을 둘러싼 긴장과 갈등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어느 사회건 이익의 충돌이라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법과 제도를 구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집중된 권력이 가져올 수 있는 남용을 막기 위해서 인간들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체계화하고, 법의 지배The Rule of Law라는 대원칙을 세움으로써 이익의 갈등이 가져올 수 있는 파괴적인 결과를 막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그러나 어느 사회든지 올바른 법과 제도만으로 안정과 번영을 보장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법과 제도는 그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한 사회의 변영이란 주제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회 구성원들이 가진 ‘사고의 틀a way of thinking’만큼 중요한 것도 드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정 사회의 구성원들이 올바른 사고의 틀을 갖지 않는 한, 제대로 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질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현대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한 사회를 이루는 다수가 잘못된 사고의 틀에 바탕을 두고 선택을 하는 경우, 사람들은 올바른 법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결국 그 사회는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인들은 요사이 흔하게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자본의 총공세와 같은 용어를 심심찮게 접하게 된다. 이른바 진보진영에 속한 지식인들 사이에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민영화, 규제완화, 그리고 작은 정부 등을 신자유주의의 공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또한 경제위기의 원인에서부터 기업과 은행의 구조조정방법, 그리고 한국 사회의 진로에 대해서도 진보주의자들과 자

1) Michael Novak, Business as Calling, Free Press, 1996, p.147. Michael Novak, Business as Calling, Free Press, 1996, p.147.

유주의자들 사이에는 현저한 시각차가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진보주의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이들의 주장이 일반인들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는 경제문제에 있어서만은 ‘정부가 이런저런 일을 해야 한다’든지 ‘정부는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든지 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 또한 진보진영이 내놓는 다양한 정책들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좀 더 가깝게 와 닿기 때문이다. 반면 논리적으로 꼼꼼히 따져야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 자유주의자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다소 냉혹하다고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고용안정 문제만 해도 그렇다. 사용자가 혹은 정부가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듣는 것만으로 인간적인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실직 가정家長의 어두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이 이처럼 ‘눈에 보이는 비용’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을 생각해 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²⁾

뿐만 아니라 대규모 기업집단들의 성장과 과대포장된 경제력집중문제는 보통 사람들에게 강력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인들은 짧은 근대화시기를 제외하고 시장경제 속에서 생활해왔던 경험이 거의 없고, 개인의 자유와 책임 등과 같은 덕목을 강조하는 자유주의는 역사적인 경험으로 체화되어 있지 않다. 이런 저런 일들이 한국인들에게 자유주의에 바탕을 두는 개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익명의 다수로 이루어진 어떤 사회가 지속적으로 부를 만들어 내고 ‘열린사회’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자유주의 원칙이 법과 제도라는 시스템으로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들이 자유주의를 세계관으로 혹은 삶의 철학으로 받아들여야 한다.³⁾ 한마디로 자유주의가 한 사회의 시대정신時代精神으로 온전히 자리잡을 수 있을 때 열린사회와 변영이 가능하게 된다.

이 글은 자유주의의 확산을 위해 앞서 간 나라들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가를 살

2) 프랑스의 저명한 자유주의 논객, 바스티아의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이를 정확히 지적한 것이다. 김정호 역, 『법』, 자유기업센터, 1997, Frederic Bastiat, The Law, William Volker Fund, 1964, pp.17~18.

3) 자유주의는 로크적 전통에 따라 개인의 자유 특히 사유재산권과 자유시장경제를 절대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을 의미하는 리버테리аниз즘Libertarianism과 동의어로 오염되기 이전인 원래 의미의 자유주의를 뜻한다. 특히 시장경제 (혹은 자본주의)를 떠받치는 이념인 (경제적) 자유주의는 개인적 선택과 책임의 원리, 작은 정부, 법치, 자유기업, 그리고 폭력의 자제 등과 같은 세부적인 원칙들로 이루어져 있다. 공병호, “자유주의자가 본 한국의 기업”, 『21세기와 자유시장경제(제1회 총무포럼)』, 자유기업센터, 1997, pp.13~14.

펴보고자 한다. 특히 자유주의가 한 시대를 주도하는 정신으로 자리 잡아 나가는 일의 중요성을 인식한 개인 기업가들과 지식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와 이것이 오늘의 한국 사회에 주는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

2. 시대정신을 둘러싼 전쟁

고비용·저효율이 한국 경제의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된 중요한 원인 중에는 지난 10여년 동안 정치원리가 시장원리를 압도하는 일이 빈번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뚜렷한 철학을 지니지 못한 채 국가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다수가 원하는 것, 크게 말썽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취한다는 것이다. 정치의 속성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정치가들이 한 사회의 전체적인 지적 분위기를 거스르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쉽게 알 수 있다.

한 시대를 특징짓는 정신을 우리는 흔히 시대정신Zeit-geist이라 한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해야 한다’든지, ‘정부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대접을 해주어야 한다’든지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에서, 보통의 정치가라면 인기를 잃는 위험을 무릅쓰고, 표를 잃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에 반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리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한 시대를 풍미하는 시대정신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누가 그 시대정신의 주역인가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시대정신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을 두고 영국의 경제문제연구소Institutional Economic Affairs(IEA) 소장인 존 블란델John Blundell은 ‘사상 전쟁의 수행 Waging the War of Ideas’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⁴⁾ 이는 시대정신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벌어지는 진보와 자유진영 사이의 치열한 경쟁을 두고 일컫는 말이다.⁵⁾

4) John Blundell, “Waging the War of Ideas : Why There Are No Shortcuts”,<http://www.atlas-fdn.org/idea-war.htm>

5) 필자는 진보進歩와 보수保守라는 대결구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사회에서 보수는 늘 기존의 것을 고수하려는 수구守舊라는 말과 함께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주의만큼 진정한 의미에서 진보가 있겠는가? 진보주의자들의 학술지인 『동향과 전망』이란 잡지에서 지식인들을 상대로 설문지를 돌렸다. 이 가운데 “이 시대의 진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이 있다. 강철규 교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시대의 진보는 자유주의의 실현이다. 이를 제약하는 정부규제, 각종 제도를 개혁하고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기구를 확립하는 것이다”고 설문자의 기대와 다른 답으로 응답하고 있다. “분단 50년, 진보적 사회과학의 반성과 과제”, 『동향과 전망』, 녹두, 1995, p.47.

어떤 사회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련의 개혁 작업이 필요할 경우,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도자의 확고한 철학과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는 개혁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도층들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도자의 자질과 함께 사회의 전반적인 지적 분위기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다.

사회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지적 분위기가 지도자가 이끌고자 하는 방향과 완전히 다르다면 개혁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 시대정신은 일종의 제대로 된 개혁을 위한 지적 인프라스트럭처(intellectual infrastructure)라고 할 수 있다. 마치 활주로나 없는 상태에서 비행기가 날 수 없듯이 지적 인프라스트럭처가 척박한 땅에서 제대로 된 변화를 성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사회가 그 진로를 두고 방황하는 데에는 지도자의 확고한 철학과 리더십, 그리고 변화를 선도하는 지도층 그룹의 부재 외에도 세상의 흐름과 어긋나는 한국 사회의 시대정신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영국은 자유주의가 화려하게 꽃을 피웠던 나라이다. 그러나 일단 정부개입주의(interventionism)가 시대정신을 장악하고 나자, 급속하게 복지국가의 길로 달려가게 된다. 이 결과 2차 대전이 끝날 무렵,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는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을 자유주의의 종주국인 영국에서조차 아주 소수로 전락하게 하였다.

종전과 함께 영국에서는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유례없이 높아지게 된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사람들은 영국이 '영웅들에게 어울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기다리고 있던 것은 1920년대의 공황이었다. 때문에 '민중들의 전쟁'으로 불리었던 2차 대전이 끝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더욱 강력한 정부의 통제를 원하게 되었다. 전시어나 평화 시에도 정부는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었고 노동당은 결정적으로 처칠에게 승리를 거두어 그를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한마디로 그 당시를 진보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영국 사회의 방향 전환을 목격하면서 처칠은 점점 사회주의화의 길로 달려가는 영국 사회를 향해 이런 경고를 하고 있다.

“사회주의는 부자를 끌어내리는 데 반해 자유주의는 가난한 자를 끌어올린다. 사회주의는 기업을 죽이지만, 자유주의는 기업을 특권과 보호라는 족쇄에서 구한다. ……사회주의는 규정을 중히 여기지만 자유주의는 사람을 중히 여긴다. 사회주의는 자본을 공격하지만, 자유주의는 독점을 공격한다.”⁶⁾

한편 미국에서도 30년대의 대공황, 뉴딜정책,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케인즈 학파의

6) 박정기 역, 『지도자들』, 을지서적, 1997, Richard Nixon, Leaders, 1982, p.62.

특제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국민들의 일상생활의 곳곳에 간여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이렇듯 진보로 대표되는 정부개입주의가 압도적이었던 시기에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책이 출간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된다. 1944년 3월 영국에서 처음으로 출간된 하이에크 교수의 『노예의 길The Road to Serfdom』⁷⁾이 바로 그것으로 미국에서는 시카고 대학판이 나온 이후 그 요약본이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렸고, 이어 백만 부 이상이 판매되게 된다.⁸⁾ 이를 계기로 하이에크는 미국 전역을 돌면서 연설을 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하이에크 교수가 거둔 성과는 놀라운 것이었다. 정부개입주의자들이 지배적인 분위기 속에서 하이에크의 저서는 이후 자유주의의 확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 특히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은 잠자고 있던 몇몇 자유주의자들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된다.

3. 자유주의자들과 하이에크⁹⁾

어느 시대나 혁신은 소수에 의해서 주도된다. 이런 점에서 한 사회의 시대정신이라는 공공재를 만들고 확산시키는데 큰 기여를 한 사람들 역시 소수였다. 『노예의 길』에서 감명을 받은 인물들 가운데 자유주의의 확산에 큰 기여를 한 인물로 미국의 헤럴드 루노Harold Luhnow, 레너드 리드Leonard Read, F.A. 하퍼F.A. Harper, 그리고 영국의 앤터니 피셔Antony Fisher를 들 수 있다. 우선 루노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1920년대와 30년대에 루노는 그의 삼촌인 윌리엄 볼커를 도와 도매 법인에 기반을 둔 볼커스 캔자스 시티에서 일하게 된다. 1932년 볼커는 윌리엄 볼커 기금William Volker Fund을 창립했고 1944년에 루노는 그의 뒤를 이어 이사장이 되었다. 루노는 이미 로렌 밀러Loren Miller를 통해 자유주의 사상을 접하고 있었다. 밀러는 중요한 회사를 경영하는 지성인들인 듀폰사의 재스퍼 크레인Jasper Crane, 크라이슬러의 B.E. 허치슨, GE의 헨리 위버Henry Weaver, 인디애나폴리스의 사업가이며 1960년에 자유기금Liberty Fund을 창설한 피에르 굿리치Pierre Goodrich, 이어하트 재단의 창설자인 리처드 이어하트Richard Earhart와 같은 사람들과 매우 친밀한 사이였다.

『노예의 길』을 읽은 루노는 철저한 고전적 자유주의자가 되었다. 그리고 볼커기금의

7) 영국에서는 전시의 물자배급 우선순위나 물자부족, 그리고 건축 기준에도 불구하고 15개월 간 5차례나 재판되는 인기를 누리게 된다.

8) George H. Nash, The Conservative Intellectual Movement in America, 1996, ISI, pp.3~6.

9) 이 장의 골격은 John Blundell이 1990년 1월 헤리티지재단의 초청강연에서 행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다.

이사장으로서 그는 자유주의의 확산을 위해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945년 그는 하이에크를 만났고 그를 시카고 대학으로 초청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루노를 비롯하여 영국과 미국 사회의 장래를 걱정하는 뜻있는 사업가들이 당시에 가졌던 중요한 의문은 ‘자신과 아이들 세대가 살고 있는 국가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 가게 될 것인가? 그리고 잘못 가고 있는 국가의 진로를 수정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국가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겐 대개 비슷한 고민이 있음을 알 수 있다. IEA의 존 블란델 소장은 과거나 지금이나 간에 한 국가의 진로를 자유주의 쪽으로 선회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이에크의 지적에서 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¹⁰⁾

첫째, 사회주의(정부개입주의)가 자리 잡게 된 것은 부분적으로 고전적 자유주의가 표면적으로 시의적절하고 활기찬 일련의 시대사상을 이루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의 회생을 위해 하이에크는 결정적인 첫걸음으로, 고전적 자유주의 학자들과 여타 학자들의 국제적 모임인 몽 펠레린 소사이어티The Mont Perelin Society를 결성하게 된다.¹¹⁾

둘째, 보통 사람들이 경제문제에 대해서 갖게 되는 의견이나 관점은 경제보다는 역사적인 경험이나 교훈으로부터 얻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부의 강력한 개입과 자생적 질서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졌던 역사주의 학파는 훗날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셋째, 단지 현재의 일상적인 문제에 매달려 매일매일의 생활을 해결하는데 여념이 없는 사람들은 시대정신이나 사상이 장기간에 미치는 영향력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원칙을 갖추고 확고한 이념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오늘의 사소한 일에 만 관심을 가지는 실제적인 사람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사업가들은 지식인이나 사상가들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는 지식인들의 사

10) 하이에크의 아이디어는 「역사가와 유럽의 미래」(1944), 「몽 펠레린 회의의 개막연설」(1947), 「지식인과 사회주의」(1949), 「경제적 자유 사상의 전달」(1951), 「전문화의 딜레마」(1956) 등으로 『철학, 정치학, 경제학 연구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에 재수록되어 있다.

11) 스위스의 베베이Vevey에 가까운 몽 펠레린의 파크 호텔에서 36명의 자유주의자들이 모여서 만든 범세계적인 자유주의자 모임으로 1947년 4월에 만들어진 이후, 1997년에 50주년을 맞았다. 2년마다 열리는 전체모임 중간에는 지역모임이 개최된다. 1998년 8월 30일부터 9월 4일에는 워싱턴에서 모임이 열렸다. Greg Kaza, “The Mont Perelin Society’s 50th Anniversary”, The Freeman, The Foundation for Economic Education, June 1997, pp.347~351.

상이나 이념이 한 사회의 방향을 결정짓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는 부를 만들어내는데 여념이 없는 사업가들이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넷째, 자유주의자들은 특정한 이익과 관계를 갖지 말아야 한다. 게다가 자유적이지도, 그렇다고 해서 기업적이지도 않은 ‘자유기업’ 정책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한다.

다섯째, 정치에 직접 관여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 사회의 진로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라면 결국 한 사회의 방향이 학자, 지식인 그리고 지성적 기업인들이 사상세계에서 전개하는 활동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여섯째, 오랜 기간 동안 사상의 전쟁에서 지식인, 즉 언론인, 작가 등 학자들의 사상을 해석하고 대중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들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필터 역할을 한다.

일곱째, 역사적으로 볼 때, 시장을 지향하는 가장 유능한 사람들의 많은 비율이 지식인이나 학자가 되지 않고 사업가, 의사, 엔지니어 등이 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뒤집어 말하면, 많은 비율의 가장 유능한 사회주의자들이 지식인이나 학자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여덟째, 자유주의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으리라는 신념과 확신, 그리고 이를 위한 용기를 가져야 한다. 하이에크는『지성인들과 사회주의』의 마지막 귀절에서 자유주의자들의 헌신과 용기를 기대하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진정한 자유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들의 성공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은 이상주의자가 된 그들의 용기입니다. 이것은 지식인들의 지원을 얻게 해주었고 그래서 최근에는 하루하루 조종이 가능하게 된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이에크는 비슷한 내용을 글을 1949년에도 이야기하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독자적으로 현존하는 여론의 상태에서 사용 가능한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이를 찾고 있지만, 이러한 일은 그들이 주도할 수 없는 여론 변화의 결과로 정치적으로 급속히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자유로운 사회에 대한 철학적 기반을 활발한 지성적 현안으로 만들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독창력과 상상력을 다해 이 과업에 도전하지 않는 한 자유의 전망은 실로 어두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전성기의 자유주의의 상징이 되었던 사상의 힘에 대한 믿음을 되찾을 수 있다면, 아직 전쟁은 진 것이 아닙니다. 세계의 많은 분야에서 이미 자유주의의 지성적 부활이 진행 중입니다. 조만간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런던경제연구소의 소장인 존 블란델은 하이에크가 시공을 초월해서 자유주의자들에게 주는 교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 바 있다.

첫째, 자유주의 사상을 활기차고 시의 적절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둘째, 역사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셋째, 원칙을 가지고 확고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넷째, 특정한 이익을 피해야 한다.

다섯째, 정치를 피하고 수단을 찾아야 한다.

여섯째, 지식인의 결정적인 역할을 인식해야 한다.

일곱째, 이상주의자가 되고 사상의 힘을 믿어야 한다.

4. 세상을 바꾸기 위한 노력

‘지성의 사닥다리를 올라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사회주의자가 되기 쉽다’는 하이에크 교수의 말처럼 한 사회가 헌신적인 자유주의자를 가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심성이 집단적이고 평등적인 성향을 갖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면, 헌신적인 자유주의자를 갖는 사회는 아주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다.¹²⁾

이런 점에서 보면 미국과 영국 사회가 걸어온 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들 사회는 성공적인 비즈니스맨들 가운데서 헌신적인 자유주의자들이 등장함으로써 인하여 자유주의가 확산되는 행운을 갖게 된다. 물론 성공적인 사업가들이 헌신적인 자유주의자로 변신하는 데에는 저명한 자유주의 지식인들의 기여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앞에서 설명한 루노의 활동을 좀 더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성공적인 사업가들이 한 사회가 올바른 방향을 선택해서 번영을 향해 나아가는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잘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루노가 이끈 볼커기금의 주목할 만한 활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³⁾

첫째, 볼커기금은 그 당시 미국 내 대학에서 자리를 얻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던

12) 김정호·공병호, 『갈등하는 본능』, 한길사, 1996; 공병호, 『시장경제와 그 적들』, 자유기업센터, 1997을 참조한다.

13) 볼커기금의 활동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기업가들은 로렌 밀러Loren Miller와 돌Dole사의 부사장, 유나이티드 브랜드의 사장, 그리고 딜링엄사의 사장을 지냈던 허브 커뉴엘 Herb Cornuelle의 통찰력이 큰 기여를 했다.

하이에크, 루드비히 폰 미세스, 아론 디렉터 Aaron Director 등의 세계적 학자들을 지원했다. 미국 사회조차도 당시의 지성적 풍조는 정부가 모든 것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다고 믿는 반자유주의적인 정서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시대정신과 반대편에 서있던 사람들이 괜찮은 대학에 자리를 잡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둘째, 볼커기금은 소수의 자유주의 학자들이 만나서 토론하고 생각들을 나눌 수 있도록 지원했다. 프리드먼의 ‘자본주의와 자유’, 레오니의 ‘자유와 법률’,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은 모두 이러한 모임에서 나온 것들이다. ‘법경제학’ 그리고 ‘공공선택론’도 초기 볼커 프로그램에서 그 기원을 쉽게 찾을 수 있다.¹⁴⁾ 또한 볼커기금은 1947년에 열린 몽 펠레린 소사이어티에 좀 더 많은 북미학자들의 참석을 위해 기금을 내놓기도 했다.

셋째로, 볼커기금은 자유주의에 대한 교육과 계몽사업의 추진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1961년 설립한 인문과학연구소 IHS는 자유로운 사회의 이상에 관심을 가진 재능 있는 젊은이들을 찾아내고, 지원하며, 양성, 발전시켜 나가는 일을 해냈다.

넷째, 볼커기금은 고전적 자유주의 학자들이 출판업자들에게 소외당하던 당시, 인문과학 시리즈를 출판하였다. 이 책들은 미국도서재단 The National Book Foundation에 의해 미국의 거의 모든 대학 도서관에 배포되었다. 끝으로 볼커기금은 몇몇 보완적인 연구소의 설립을 지원했다. ‘개인주의자들의 대학간 협회 The Intercollegiate Society of Individualists : ISI’, ‘경제교육재단 The Foundation of Economic Education’, ‘이어하트 & 레임재단 The Earhart and Reim Foundation’의 설립을 도왔다.¹⁵⁾ 뿐만 아니라 볼커기금의 활동이 끝난 후 볼커기금의 설립 이념을 이어받은 인문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오늘날까지 활발한 활동을 계속해오고 있다. 워싱턴 근교의 조지 메이슨 George Mason 대학교에 위치한 인문과학연구소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젊은이들 가운데 자유주의 이념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¹⁶⁾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이 구원해 낸 또 한 명의 인물로는 레너드 리드 Leonard Read를 들 수 있다. 1898년에 태어난 리드는 1939년부터 미국에서 가장 큰 상공회

14) 자유주의자들의 활동에서 법경제학과 공공선택학파가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이 학파들의 초기 연구를 지원한 볼커기금의 역할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15) ISI는 후에 Intercollegiate Studies Institute로 이름을 바꾸어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ISI는 주로 신보수주의로 분류되는 Russel Kirk, Richard M. Weaver, Henry Regnery 등의 저서를 내고 있다. Wilmington, Delaware에 위치한 ISI가 최근에 내놓은 책은 미국의 보수주의 운동을 잘 정리한 George H. Nash, The Conservative Intellectual Movement in America, ISI, 1996.

16) www.TheIHS.org를 참조한다.

의소인 로스앤젤레스상공회의소the Los Angeles Chamber of Commerce의 회장을 지낸 인물이다. 그 역시 원래부터 헌신적인 자유주의자는 아니었다. 정부개입주의자에 동조하고 있던 그가 극적으로 인생의 방향을 선회한 것은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되었다. 1932년 어느 날, 그는 자신과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었던 멀렌도어W.C. Mullendore를 만난 적이 있다. 멀렌도어는 남캘리포니아의 에디슨사의 부회장으로 일하면서 열렬한 우파 지지자였다. 단 한 시간 동안의 토론이 리더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된다. 훗날 단 한 시간의 짧은 만남이 그로 하여금 자유시장경제와 작은 정부에 헌신하도록 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회상한 바 있다.

상공회의소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그는 사업가들 가운데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과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GM의 브라운Brown, BF 굿리치사의 굿리치 Goodrich, 헨리 헤즐릿Henry Hazlitt, 그리고 레임 & 이어하트 재단의 폴 포아Paul Poirot로, 윌리엄 커티스William Curtis, 이반 블레일리Ivan Blerley 등이 그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인물들로 훗날 자유주의의 확산에 재정적이고 정신적인 지지자였다. 생각을 바꾼 리더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다양한 조직들의 활동을 걱정하게 되면서 정부개입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대중과 지식인들을 설득하기 위한 교육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그의 첫 작업은 3천명 가량의 사람들에게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의 간략한 저술을 보내는 일이었다. 이를 위하여 팜플렛사Phamphleteers, Inc.를 설립하게 된다. 첫 작업으로 하버드 대학의 토마스 닉스카버 교수가 소개한 프랑스의 저명한 자유주의 논객, 프레드릭 바스티아Frederic Bastiat의 『법』이란 책이었다.

리더가 미국 사회에 남긴 최고의 업적은 자유주의를 체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경제교육재단the Foundation of Economic Education을 1946년 3월에 설립한 점이다.¹⁷⁾ 리더는 37년간 경제교육재단의 이사장으로 일하면서 자유주의 이념을 확산시키기 위한 교육의 길을 개척하였다.

그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즉, 고전적 자유주의와 그 지성적 전통을 회복하는 것과 이 전통을 일반인들에게 전파하는 것이었다. 결국 그는 주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고, 많은 사람들의 삶에 수년 동안, 수십 년까지도 특별한 역할을 했다. 사실, 40년대, 50년대, 60년대의 레너드와 경제교육재단FEE이 없었다면, 이를 뒤따르고 확장해 나가는 70년대와 80년대의 자유로운 사회를 위한 노력들은 훨씬 더 어려운 싸움에 직면했을 것이다. 특히 경제교육재단이 발간하고 있는 『자유인The Freeman』

17) 뉴욕의 센트럴 스테이션에서 40분 정도에 있는 조그만 소도시 Irving-on-Hudson에 위치한 경제교육재단은 고전적 저술과 여름하계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http://www.fee.org>를 참조한다.

은 고전적 자유주의 이념을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F.A. “볼디(대머리)” 하퍼Harper 역시 루노와 리드처럼 『노예의 길』을 읽고 자신의 인생행로를 바꾼 사람 가운데 하나이다. 『노예의 길』을 만날 당시 하퍼는 코넬 대학교의 경제학과 교수였다. 그는 즉시 이 책을 이용하여 코넬 대학교의 교실에서 강의를 했다. 그러나 당시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고 있던 대학으로서는 이 일이 논쟁거리 이상으로 번질 것을 우려하여 이 강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 사건 이후 하퍼는 코넬 대학교가 자신이 계속해서 몸을 담아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레너드 리드와 합류하여 경제교육재단FEE의 연구원이 되었으며, 50년대 중반에는 윌리엄 볼커기금의 선임연구원이 되었다. 1961년에 그는 세 번째로 자리를 옮겨 인문과학연구소IHS를 설립했다.

인문과학연구소IHS는 처음에 회의, 출판, 인재 스카웃과 같은 볼커기금의 많은 프로그램을 지속해나갔다. 인문과학연구소는 볼커기금의 연구원을 물려받고 볼커기금을 이끌었던 로렌 밀러와 허브 코뉴엘의 전략과 접근방법을 전수 받았다. 자유주의 이념을 확산하기 위한 종합적인 기능을 담당하였던 IHS는 1970년대 말부터 방향 전환을 시도하게 된다. 세미나와 워크숍 등을 주선하는 다른 연구집단들이 출현하게 되고, 대학의 출판국과 상업출판사들이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의 작품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임으로써 인문과학연구소는 독특한 임무인 인재 스카웃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가장 훌륭하고 명석한 학생들 중 누가 시장지향적이며, 그리고 인생의 길을 학자나 지성인으로 전념할 수 있는지를 찾아 이들을 양성하며 지원하는 일을 독점적으로 도맡아 왕성하게 활동하기 시작하였다.¹⁸⁾

마지막 지성적 사업가는 앤터니 피셔Anthoy Fisher이다. 그는 『노예의 길』을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요약본으로 읽었다. 2차 대전 당시 조종사였다가 후에 농부로 변신한 그는 런던경제대학Londen School of Economics의 하이에크 교수를 찾아갔다. 그는 당시의 이야기를 이렇게 회고한 바가 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정치에 입문해야 할까요?” 그가 물었다.

“아니오” 하이에크는 대답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18) 1998년 6월, 조지메이슨 대학교 가까이 위치한 인문과학연구소에서 인상적이었던 점은, 젊은이들이 자유주의자로서 자신의 경력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며, 어떤 대학에서 누구에게 배울 것인가 등에 대해서 연구소가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점이다. Jeremy F.G. Shearmur, Scaling the Ivory Tower : The Pursuit of an Academic Career, IHS, 1995.

“사회의 진로는 오직 사상의 변화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먼저 당신은 합리적인 주장으로 지식인들, 교사와 작가들을 설득하십시오. 이러한 사상이 그들의 영향으로 보편화되면 정치가들은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10년 가까이 피셔는 하이에크의 충고를 심사숙고했다. 40년대 말, 그는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 경제교육재단FEE을 방문했다. 그는 자유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다른 접근방법을 선택하였다. 그는 1955년에 ‘런던경제문제연구소IEA’를 설립하여 자유경제와 지식인들을 위한 활동무대를 만들었다. 그는 누가 농담 삼아 영국의 “자유시장을 신봉하는 마지막 두 명의 경제학자”라고 말한 랠프 해리스Ralph Harris와 아서 셸튼Arthur Seldon을 초빙했다. 런던경제문제연구소IEA는 일련의 독립적인 연구들을 출판하기 시작했다. 이 책들은 대부분 학자들에 의해 저술되었지만 쉽게 쓰여져 모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의 전략은 정치를 피하고 여론의 분위기를 조성에 치중하며, 여론 지도자들에게 시장의 대안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해리스와 셸튼은 20년 동안 끈기있게 노력하여 주택문제에서 농업, 복지, 환율통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훌륭한 연구논문을 산출해냈다.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여론은 명백하게 정부의 개입이 아닌 시장의 해법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으며 런던경제문제연구소IEA는 분명히 그 책임을 다했다. 1979년 수상 취임을 앞둔 대처 여사는 앤터니에게 “당신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라고 편지를 썼다. 그리고 몇년 후, 런던경제문제연구소IEA의 3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대처 수상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당신들의 위대한 노력에 동참한 모든 이들에게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들은 소수였지만, 당신들은 옳았고 당신들은 영국을 구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런던경제문제연구소IEA의 모델은 전세계적으로 모방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앤터니에게는 이러한 신흥 단체들의 컨설팅 요구가 폭주했다. 197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지성적 사업가들에게 독립적인 공공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소들을 설립하게 하는데 사업초점을 맞춘 ‘아틀라스경제연구재단Atlas Economic Foundation’을 설립하게 되었다.¹⁹⁾ 오늘날 아틀라스재단의 명단에는 그들의 설립과 발전, 완성을 도와 준 30여 개국의 50개가 넘는 연구소들이 들어 있다.

5. 다른 세계의 기업가들: 헤리티지Heritage 재단의 성장

19) 아틀라스교육재단은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유주의자들의 정보교환과 친선도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일련의 워크숍을 통해서 젊은 자유주의 지식인들 사이에 친분과 정보교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자유주의 사상의 확산에서 괄목한 만한 것은 미국 헤리티지연구소의 설립과 눈부신 성장을 들 수 있다. 1930년대 이래로 미국 사회는 뉴딜정책으로 대표되는 정부개입주의가 득세하고 있었다. 1960년대 존슨 행정부의 ‘위대한 사회’ 건설은 진보주의의 약진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존슨이 ‘위대한 사회’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것은 1964년 미시간 대학 졸업식 축사에서였다. ‘빈곤과의 전쟁’이라는 개념은 그로부터 4개월 전에 행한 연두교서에서 처음 등장하였다.²⁰⁾ 당시의 존슨 대통령이 가졌던 정부개입주의에 대한 확신은 1965년 대통령 취임 연설의 한 구절을 인용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의 연설문은 미국 개혁정신의 소박한 낙관주의를 잘 반영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가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갖고 미국인의 높은 이상에 부합하는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다.

“우리의 세계는 사라졌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옛 세계에 작별을 고하고, 새로운 세계를 맞아들여 인간의 의지대로 고쳐나갈 때입니다.”²¹⁾

1946년 자유주의(미국적 의미의 보수주의)를 높이 세우고 대통령 선거 전에 임했던 배리 골드워터 Barry Goldwater 상원의원은 겨우 여섯 주에서만 승리하는 참패를 기록하게 된다.²²⁾ 그러나 그는 이러한 선거전의 참패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진보의 물결에 맞서서 자유주의자들을 단결시키는데 하나의 큰 획을 그은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유세 기간을 통해서 정부개입주의자들이 실행했던 각종 정책들에 대해 직설적인 비판을 가했다. 그의 주장들은 헌법적 토대를 굳건히 함으로써 법의 지배원칙을 세우는 일, 연방정부의 규모를 줄이고 주정부에 정치적 권력을 분산하는 일, 인권과 교육 문제에 대해서 연방정부의 개입을 줄이는 일, 노동조합에 대해 특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 등은 1980년대 레이건의 선거전에 나온 유세와 성향이 비슷한

20) 존슨 행정부는 그 어느 행정부보다 도시, 교육, 빈곤,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입법들을 만들었다. 주요 법안들은 1964년과 1965년 2년 동안 거의 통과되었으며, 주요 법안들 가운데는 ‘경제기획법’, ‘투표권법’, ‘초등 및 중등 교육법’, ‘국민의료보장법’, 그리고 ‘노인의료보장법’ 등이 이때 만들어진 것이다. 1964년과 1968년 사이에 대략적으로 4백 개 이상의 법안이 제정되었고, 1969년 리처드 닉슨이 취임했을 때 4백 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시행중이었다. 이는 1961년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직을 물러났을 때에 비해 10 배나 많은 것을 뜻한다. James A. Smith, *The Idea Brocker*, 1991, 손영미 역, 『미국을 움직이는 두뇌집단들』, 세종연구원, 1996, p.206.

21) James A. Smith, 손영미 역, 1996, p.204.

22) 원래의 자유주의 liberalism는 고전적 자유주의를 뜻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미국에서 완전히 다르게 사용되어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한다. 미국에서의 자유주의는 곧바로 정부개입주의를 말하며, 이는 진보주의를 뜻하기도 한다. 원래의 자유주의는 미국에서 보수주의 conservatism이나 신보수주의 neo-conservatism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우리 나라에서 보수주의는 변화를 거부하고 맹목적으로 현 체제를 옹호한다는 수구 수호의 이미지를 갖기 때문에 원래의 자유주의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러나 골드워터는 정치인이라면 가져야 할 타협이란 것은 애시당초 인정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대다수의 대통령 후보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이 무엇이든지간에 현실과 적절히 타협하는 자세를 취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유독 골드워터는 완강한 의사표현이 설령 자신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하기를 거부하고 솔직한 태도를 견지하였다. 골드워터는 확고한 우익의 입장을 고수했고, 이 같은 타협할 줄 모르는 그의 태도가 표를 잃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게 된다.

선거전의 참패, 시대정신으로 자리잡은 진보주의, 조직화된 진보진영을 앞에 두고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은 지리멸렬한 상태를 유지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때 조직화된 적에 대항하기 위해서 소수파인 자유주의자들이 내부의 이념적 차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요새를 구축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기 시작하였다. 이때 자유주의자들의 활동에 큰 획을 긋는 연구소들이 등장하게 된다.

우선 헤리티지의 등장은 '지성적 기업가(an intellectual entrepreneur)'와 현실세계의 '기업가'가 힘을 모아서 만든 한편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헤리티지의 창립에 기본 아이디어를 가졌던 지성적 기업가들은 풀너(Edwin J. Feulner)와 위릭(Paul M. Weyrich)이라는 두 젊은이들이었다. 1971년 봄, 초음속항공기(the supersonic transport : SST)에 관해서 의회 내에 논쟁이 일어났을 때 풀너는 일리노이 출신의 공화당 의원인 필립 크레인의 행정 담당보좌관으로 불과 30세였다.²³⁾ 그리고 위릭은 콜로라도 출신의 상원의원이었던 골든 앨러트의 언론 담당보좌관으로 28세에 불과하였다. 이들은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골드워터의 원칙에 고무되었으며 스스로 자유주의 운동가(미국적 의미의 보수주의 운동가)라고 불렀다. 그들의 공통된 문제인식은 진보주의자들은 정교하게 조직된 정책결정기구를 갖고 있는데 반하여 자유주의자들은 그들에 필적할 만한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²⁴⁾

물론 당시에 보수주의자들은 미국공공정책연구소(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공공정책연구소는 입법활동 등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초음속운송으로 정부개입주의와 자유주의가 의회 내에서 대결할 때도 AEI보고서는 표결이 끝난 며칠 후에야 도착하였다. 이것은 단순한 시행

23) SST 계획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미국이 항공산업 분야에 우위를 점하고 실업을 피하기 위해서 1962년 이래 연방정부가 지원해 온 초고속 항공기 개발 사업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이에 반해 반대파들은 SST는 대기오염과 관련 암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SST를 탈 수 있는 소수의 부자를 제외한다면 충분한 수요가 있을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결국 51대 46으로 반대파들(주로 공화당)이 승리를 거두게 된다.

24) Edwin J. Feulner Jr., The Quiet Revolution, unpublished 1991 manuscript.

착오가 아니고 AEI가 일부러 현실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의도 때문이었음이 밝혀지게 된다. AEI를 키우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바루디William J. Baroody Sr.는 골드워터를 위한 선거전에 깊숙히 간여함으로써 선거가 끝난 후 미국 국제청으로부터 철저한 조사를 받게 된다.²⁵⁾ 바루디는 가까스로 살아남는데 성공하지만, 그는 두뇌집단과 정치의 결합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결코 잊지 못하게 되었다.²⁶⁾

그러나 매사는 재정적인 문제의 해결없이 열정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이때 이 젊은이들의 활동을 후원하기 위해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 쿠어스 맥주의 창립자인 조셉 쿠어스Joseph Coors이다. 조셉 쿠어스가 자유주의자들을 후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주 우연한 일에서 시작된다. 그가 버지니아의 리치먼드에서 저명한 검사를 역임하고 있었던 루이스 포웰Lewis F. Powell에 의해서 만들어진 5천자 가량의 강연초록을 읽었을 때, 조셉 쿠어스는 그가 세운 회사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다. 특히 포웰은 미국 상공회의소 초청 연설에서 자유시장경제와 자유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공격broad attack’을 조목조목 열거하였다. 그리고 미국 기업가들의 일반적인 ‘무관심과 태만’을 비판하면서 이 같은 위협에 대해서 기업가들이 효과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포웰은 “기업가, 자유기업체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그 시간이 너무 늦었다”는 경고를 그의 강연을 통해 단호하게 마무리 지었다.²⁷⁾

훗날 쿠어스는 포웰의 강연초록이 그가 행동하도록 일깨웠으며 그로 하여금 미국 기업들이 위기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확신시켜 주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 그는 기업가들과 그들이 만든 단체들이 미국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해서 강력하고 소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 그 이유를 궁금해했다. 예를 들어, 그가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한 정책들 가운데 하나는 닉슨 대통령이 임금과 가격에 대한 90일 간의 동결조치와 임금과 물가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사 양측이 협조하는 생활비연구위원회a Cost of Living Council를 포함하는 신경제정책을 들었다. 또한 그는 자신과 다른 기업계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정치적으로 더욱 깊게 참여하게끔 촉구한 전 재무상 헨리 포러Fowler의 강연에 의해서도 한층 고무된 바 있다. 조셉 쿠어스가 자신이 세

25) AEI 연구진들이 선거에 참여한 사실은 하원의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확인된다. 특별위원회는 AEI의 면세권 박탈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재정기록을 압수하고 그로부터 2년 동안 국제청이 협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후 바루디는 공공연한 정치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삼가고,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학자들을 기용하려 노력하게 된다. 이후 AEI는 두뇌집단이 오랫동안 살아남기 위해서는 탄탄한 이론적 기반을 지닌 연구기관으로의 변모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26) Lee Edwards, *The Power of Ideas : The Heritage Foundation at 25 Years*, James Books, 1997, pp.4~5.

27) Lewis F. Powell, “The Powell Memorandum : Attack on American Free Enterprise System,” August 23,1971, published and distributed by the U.S. Chamber of Commerce.

운 회사가 정치적으로 더욱 깊게 간여하기로 결정한 이후 자신이 당면한 최고의 문제는 어떤 조직을 지원할 것인가라는 문제였다. 쿠어스가 이때 30대 초반의 두 젊은이를 만나게 된 것은 행운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현실세계의 기업가와 지적 기업가가 만나서 미국 사회의 변화에 큰 일익을 담당할 한 편의 사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풀너와 위릭을 중심으로 한 창립자들은 이 정책 연구 단체 설립에 필요한 기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이들은 1973년, 콜로라도의 양조업자이자 보수운동 후원자인 조셉 쿠어스 Joseph Coors가 기증한 25만 달러의 기금으로 헤리티지 재단을 설립했다.²⁸⁾ 풀너와 위릭이 이끄는 소수의 직원들은 유니언 스테이션에 가까운 몇 개의 사무실로 입주했다. 설립 초기에 이 연구소에 기금을 낸 후원자들은 맬런 Mellon 상속자 중의 한 사람으로 90만 달러를 기증한 존 스케이프 John Scaife, 원유와 가스 사업으로 돈을 번 오클라호마주의 노블재단 Noble Foundation, 그리고 오랫동안 보수주의를 후원해 온 존 M. 올린 John M. Olin 재단 등이 있었다. 풀너가 ‘공화당 연구위원회’ 의장직을 사임하고 헤리티지재단 소장이 된 1977년 경에는 연간 예산이 2백만 달러를 넘어섰고, 때로는 연간 30퍼센트의 신장률을 보여 1983년에는 1천만 달러, 1989년에는 1천 8백만 달러에 달했다. 현재 헤리티지재단을 지원하는 지원자수는 개인과 기업, 그리고 각종 재단을 포함하여 약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²⁹⁾ 특히 헤리티지 재단의 성장에는 풀너라는 지성적 사업가의 활동이 눈부셨다는 점이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6. 맺는 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사회든 구성원들이 자유주의를 하나의 시대정신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서 그 사회가 계속해서 번영의 길로 달려갈 수 없다. 정치원리가 경제원리를 압도하고, 재산권 침해가 예사로운 일로 자리 잡고, 법치의 원칙이 이런저런 명분에 밀려 허물어지고, 거대정부가 생활의 곳곳을 침해하고, 각종 이해단체들이 요구하는 특별한 혜택이 받아들여지는 사회는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을 수 없다.

이미 우리 사회는 지적 인프라스트럭처의 부재로 말미암아 상당한 진통을 겪어왔다.

28) 헤리티지란 이름은 위릭이 아이디어를 얻은 다음, 쿠어스 회장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된 것이라고 한다. 처음에 제임스메디슨재단 혹은 국부재단 등과 같은 모호한 용어를 고려했다고 한다. 내일 아침까지 재단의 이름을 선정하라는 쿠어스 회장의 요구를 받은 다음, 위릭과 그의 부인이 저녁 무렵 산책 중에 빈 대지에 “곧 돌아올 것입니다. 헤리티지 타운하우스”란 입간판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Lee Edward(1997), p.10.

29) The Heritage Foundation, Heritage Today : 25 years of Leadership for America, 1998, p.1.

그러나 이는 끝난 일이 아니다. 앞으로도 이 같은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상적인 활동에 분주한 사람들에게 시대정신과 사상의 힘이 가진 중요성을 설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문제를 직시하고, 올바른 세계관에 입각해서 문제를 평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앞으로 더욱 커져 갈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는 누군가 나서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처해 있다.

우선 마치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자유주의자들의 힘을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자유주의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사안별로 미묘한 입장 차이를 갖고 있지만 사적재산권을 중시하고, 개인적 책임의 원칙하에 열심히 살아가려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유주의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이들은 자유주의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한국의 산업화를 주도했던 기업가들, 북한이란 체제에 맞서 싸웠던 반공주의자들, 산업화 과정에서 생활기반을 다질 수 있었던 대다수 중산층들, 자생적으로 생겨난 소수의 자유주의 지식인들 모두는 자유주의가 이 사회의 시대정신으로 자리잡는 데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힘을 모아서 이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니셔티브를 줘야 할 사람들은 누구인가? 영국과 미국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우리는 초기 작업을 담당해야 할 사람들은 시대정신의 중요성을 자각한 성공한 기업가들과 이들에게 시대정신의 확산을 도울 수 있는 소수의 지식인들, 다시 말하면 '지성적 기업가(intellectual entrepreneur)'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공한 기업가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지식인들에게 돈을 기부하거나 지원할 때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기업가들의 후원이나 지원이 본래의 의도한 바와 관계없이 오히려 반자본주의 정신을 확산하고, 자유기업 활동의 기반을 허무는 곳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저명한 자유주의 논객 마이클 노박(Michael Novak)은 『소명으로서의 기업』이란 책에서 돈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을 선택하는 일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³⁰⁾

30) 마이클 노박은 민간재단의 설립에 있어 중요한 문제점은 재단을 맡아서 일하게 될 사람들이 기증자가 기업활동을 통해 체득한 세계관과 경험을 공감하지 않는 경우의 위험함을 경고하고 있다 “민간재단들은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대개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에 의해 지배받는데, 이는 때로 수탁자들에 의해 또는 직원들에 의해 그렇게 변질된다. 이러한 유형의 재단들은 종종 기증자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설립목적이나 가치관과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요기 베라(Yogi Berra)의 말을 풀어쓰면 ‘원래의 기증자가 죽었다면 아마도 무덤에서 돌아누웠을 것이다’. 맥아더재단(MacArthur Foundation)에 매우 보수적인 기증자에 의해 설립됐으나, 극단적 좌익 성향으로 변질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Michael Novak, *Business as Calling*, The Free Press, 1996, pp.200~201.

“돈을 기부하는 것은 세련된 예술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많은 지적 노력과 수고가 들어간다. 그러나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많은 노력과 수고가 요구된다. 돈을 문 밖으로 퍼내는 것은 쉽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힘든 두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은 돈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을 선택하고 돈을 통해 자기가 바라던 효과를 거두는 일이다.”³¹⁾

마이클 노박이 기업가들이 설립하는 재단에 대해서 주는 몇 가지 충고에 귀를 기울일 만하다. 특히 그는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해 온 사상가로서 사상 전파를 위한 재단활동에 간여해 온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³²⁾

“가장 중요한 것은 재단에서 일하는 데 가장 적합한 사람, 즉 기증자의 재단 설립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이를 위해 일생 동안 매진할 사람을 찾는 것이다. …… 특정 사상에 대한 연구 혹은 특정 사상, 정책, 운동 등에 관한 전반적이고 객관적 연구를 후원하고자 한다면, 아마도 대학 내부 혹은 외부에 독립적인 연구센터나 싱크탱크think tank를 설립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 일반 대학의 정치적 흐름과는 동떨어진 것이어야 한다.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 책임자에게 올바른 환경을 제공하라. 여기서 책임자는 기증자의 취지에 동조하면서 자신의 권리에 있어 창조적이고 조직 및 행정에 대한 능력이 있고, 대형기관에서 일하는 동료 직원들 심지어 적대적인 동료들과도 어울려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나 아무리 책임자라고 해도 그가 속한 기관의 환경이 좋은 지원을 해 주지 못하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기관의 상부 혹은 하부로부터 나오는 냉소주의는 일을 시작도 하기 전에 망칠 수 있다. …… 앤드류 카네기가 깨달았듯이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은 기증자의 취지 이행에 대한 보증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기증자의 원래 취지를 기꺼이 지원해 줄 의사가 있는 그러한 수혜 대상자를 찾는 것이다. 그러한 의사가 없다면 재산을 기증하는 것도 그저 바람 앞에 돈을 뿌리는 것과 같다.”

아무튼 자유주의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시대정신을 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점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첫째, 자유주의 이념의 확산을 위해 구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아무리 월등한 능력을 소유한 지식인들이라고 해도 조직적인 단체의 도움 없이 자유주의 이념의 확산이 불가능하다.

31) Michael Novak(1996), pp.202

32) Michael Novak(1996), pp.202~203.

둘째, 초기 단계에는 자유주의 이념에 동의하는 특정 기업가나 단체로부터 기부를 받지만 궁극적으로는 광범위한 후원자들을 찾아내야 한다. 광범위한 후원자들을 확보하고 특정 단체나 특정 개인에 대한 재정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주장이나 의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이나 전문직을 추구하고 있는 실제적인 사람들 중에서 사상에 관심을 유지하고 있는 인물은 드물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존재하고 있으며 일부는 시장자유주의의 편이다. 최고의 지위를 지향하며 자유의 개념을 공유하고 있는 젊은 사업가나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을 찾아내고 이들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한다.

셋째, 교수, 저널리스트, 소설가, 극작가, 기자 등 지식인들 가운데 자유주의 이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감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 구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유주의에 대한 사상적 토대를 제공하는 지식인들로부터 보통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신문이나 방송에서 자유주의의 구체적인 실행사례나 정책을 알릴 수 있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정보 교류를 촉진하고 지속적인 충전을 위해 끊임없이 지식과 정보를 공급할 기관이 있어야 한다.

넷째, 사상전쟁에서 지식인들의 결정적인 역할을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들 가운데 일반대중에게 사상을 해석하고 전달해 주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들 중 가장 주목할 사람들은 언론인들이다. 그러나 성직자들, 소설가, 만화가, 사진작가, 방송작가, 편집자, 출판업자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언론인들에게 자유주의 이념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 자유주의 이념의 교육과 계몽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조지 메이슨대의 인문과학연구소, 인디애나폴리스의 자유기금, 그리고 몬테나의 정치경제연구소PERC처럼 교육과 계몽사업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

여섯째, 자유주의 이념을 전파하는 기관은 정치권력과 특정 기관이나 단체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자칫 자유주의 이념은 대기업이나 가진 자를 옹호하는 것으로 오해받기 쉽다. 이런 오해는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때문에 활동의 대내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독립성을 유지하는 일이 필요하다. 일곱째, 자유주의 이념의 확산을 장기적인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출판사업으로부터 단기 및 초단기적인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팜플렛 및 소책자, 그리고 정책관련 워크숍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야 한다.

자유주의가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는 데 실패한다면, 한국 사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나누어 먹을 것이 별반 없고, 이익집단의 성장이 어렵고, 저마다 살아가기가 바쁘기만 했던 과거에는 모두가 집단행동을 통해서 타인으로부터 뺏을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의 예산 규모도 늘어나고, 그동안의 성장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정치원리에 따른 조직적인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 외에도 명분론이 강하고, 자기주장이 강한 한국 사람들의 성향을 미루어 보면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동떨어진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시대정신을 건 사상전쟁에서의 승패는 한국인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는 문제는 단순히 지식인들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활동과 이 세대와 다음 세대의 삶 등 여러 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사회의 현실과 진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사상전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새기고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The Power of Politics is Short, The Power of Idea is Long”

기업가와 시대정신 이야기

1998년 9월 일 1판 1쇄 발행
2019년 8월 13일 1판 2쇄 발행

저자_공병호
발행자_최승노
발행처_자유기업원
주소_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9
전화_02-3774-5000
팩스_0502-797-5058

 자유기업원
